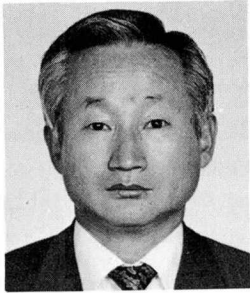


과학적인 위험관리 기능의 확대가 시급



박 익 수
(보험감독원 부원장보)

1. 방재활동의 의의

손해보험은 여러가지 형태의 보험 사고 처리를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사회생활의 안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된 기능과 아울러 손해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측정을 통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보험본래의 기능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되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대수법칙에 의하여 그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다수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인수 위험을 다시 여러가지의 위험으로 분류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화재 보험의 경우 건물구조, 설비, 용법, 소화시설 등 여러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의 개선을 촉진하고 그러한 위험의 개선노력은 화재의 예방, 손해의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보험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에 대한 예측과 실제손해와의 차이를 줄이고 또 실제손해가 손해의 예측보다 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전제가 바로 위험개선의 활동과 노력이다.

이러한 보험자에 있어서 위험개선 활동이나 노력은 그 정도여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험사고를 감소시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그 줄이는 보험료 만큼의 경영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보험사업자에 대하여도 보유를 보다 늘려 나갈 수 있게 되어 수입보험료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보험사업자의 경영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상 보험사업자측의 위험에 대한 사후적 관리효과 이외에도 사업적 관리의 효과로서 위험에 대한 과학적 평가 측정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부보조건 부보금액의 제시와 병행해서 부보위험(perils), 공제(deductible), 공동보험(coinsurance),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의 필요성 유무, 기타 보험료 절감방안의 안내 등 활동을 통한 보험가입자로 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형성될 보험사업의 사회공공성 회복이라는 역할을 들 수 있다.

2. 외국의 손해예방 활동

세계 주요국의 손해예방(loss prevention)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영국)

1666년 London 대화재에 이어 1861년 Tooley가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여러가지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868년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발족된 화재예방협회(Fire Protection Association = F.P.A)는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및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Fire Office's Committee = F.O.C)는 우리나라의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구 요율산정회의 연합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기구로서 협정요율에 참가한 보험회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소화설비에 관한 연구와 여러가지 F.O.C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특히 건축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요율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1946년에 설립된 Joint Fire Reserch Organization의 연구기관인 Fire Reserach Station은 화재에 관한 각종 연구를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고, F.O.C 산하단체인 London Wharf and Warehouse Committee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대형 위험에 대한 Underwriting Inspection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내려 이에 불응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할증을 부과하거나 심지어는 보험계약의 해지까지도 하고 있다.

〈미국〉

미국 보험업계의 손해예방활동은 다른 구미제국에 비하여 역사도 길고 그 활동영역이나 조직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체의 손해예방활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보험사업자들의 이러한 손해예방활동이 일반회사로 부터 신뢰를 얻는 기초로 되어 오고 있음은 손해보험사업의 커다란 특색으로 되고 있다.

1865년 보스톤시 Manufacturer's Mutual Fire Ins., Co.는 화재의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Massachusetts 공과대학(MIT)에 연구를 위촉함으로써 방재과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MIT의 졸업생을 회사에서 채용하여 회사단독으로 또는 대학과 업계와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스프링클러설비의 실험을 통한 설비규칙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미국의 산업계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보급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활동이 더욱 발전하여 보험업계, 소방단체, 산업계의 여러 방재기구를 총괄하는 최고기구인 전국방재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NFPA)가 창설되기에 이른 것이다. 보스톤시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100개에 달하는 각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소방기구 그리고 가입자측인 산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 기구의 주요활동중 하나는 방재에 관한 기준을 제정 심의하고 총회에서 채택된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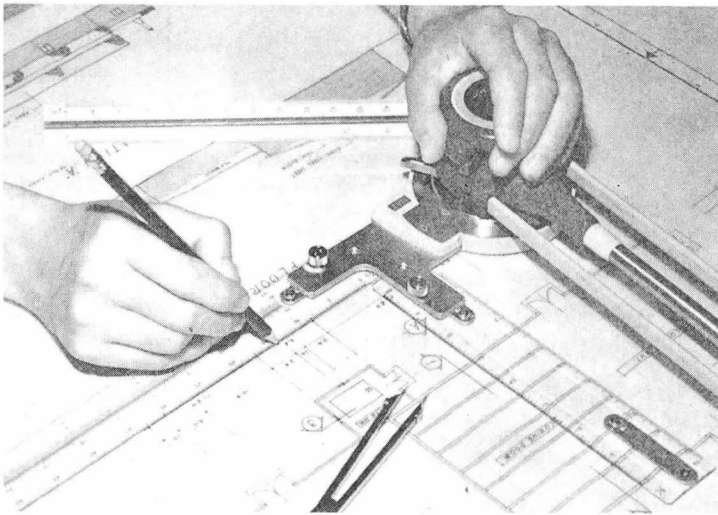
분의 기준이 각주의 법규로서 공포·시행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독자적인 기구인 전국 화재보험협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 = NBFU)는 주식회사 형태인 화재보험회사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기구로서 주로 전기설비 조사와 화재발생시 Salvage Corps(화재구조대)와 같은 잔존물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로서 화재보험회사가 주체가 된 또다른 기구로는 보험인수실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 U.L.)와 공장보험협회(Factory Ins., Association = F.I.A)가 있다.

UL은 현재 미국델러웨어주법에 의한 비관리기관으로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방기구, 전기기기등은 각주법에 따라서 UL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UL은 시카고시에 본부를 두고 4개처에 시험소가 있으며 40개소의 점검센터가 있는가 하면 세계 주요국에 40여개의 점검센터 또는 연락소를 설치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과학적인 검사, 연구 실험을 통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활동을 비롯하여 손해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확인, 그리고 보험회사, 공중안전당국,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자를 위한 시험·실험·점검등의 결과를 보고·배포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한다.

또한 상호회사 형태인 화재보험회



사가 주체로 된 기구로는 공장상호보험기구(Factory Mutual System = FM)가 있다. 이 기구는 UL과 마찬가지로 소방기기와 전기기기의 공인된 검사기구로서 크게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Standard Group은 여러 조사연구결과와 과거 경험통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재기준과 소방에 관한 권장사항을 정하며 또 손해예방에 관한 특별상담을 한다.

Research Group은 화재의 근본적인 성질, 화재의 탐지, 화재의 발전 패턴에 관한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응용연구(Applied Research)에 해당하는 저장방법에 따른 화재시험, 새로운 소화약제 및 설비, 각종물질의 발화·인화의 연구분석, 방화설비의 효용성 및 개선연구 등을 행한다.

Approvals Group은 UL과 같이 제조자가 제출한 기기, 기계 등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통하여 기준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공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 영·미 이외에도 스위스, 프랑스 등 구주 제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도 방재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손해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3. 우리의 손해예방활동과 당면과제

자유경제체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노출된 위험은 가계나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부담하게 된다. 손해보험사업은 우연의 사고발생이 존재하는 위험을 미리 예정한 비용으로 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정한 비용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우연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크기를 미리 예측하는 일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업자는 동종·동질의 위험을 구성한 다수의 개별경제로부터 적은 금액의 예정된 비용을 징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경제적 준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개별경제의 위험을 담보하여 위험(peril)을 제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선량한 관리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보험사업자의 손해예방활동은 위험관리의 한 분야로서 보험사업의 기술적 기초에 속한다. 보험사업자가 안고 있는 위험, 즉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다수·다량의 위험을 결합하고 확률·통계·수리에 기초를 둔 대수법칙에 따라 관리하고 분산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의 위치, 건물의 구조, 건물안에서 영위하는 직종, 주변의 기상(풍속등), 소방시설, 소방능력, 건물의 관리상태, 건물 및 수용동산의 가연성의 정도 등 과학적인 분석·실험 등을 통한 손해예방 및 경감활동이다.

이상 두가지의 손해경감 및 예방활동에 대한 우리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은 최근 수년동안 고조되고 있는 듯 하나 매우 그 활동 범위가 협소하고 소극적이며 그 기술적 기초 또한 비과학적이다. 극히 소수에 불과한 손해보험사가 전담과를 설치하여 대형위험을 대상으로 Underwriting inspection을 실시하거나 손해예방 Seminar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제화시대, 자유화시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과제는 보험본래의 기능이며 보험사업의 목표인 보험의 경제적 효용의 확대와 보험의 경제효용의 제고를 실현하는 일이다. 우리 손보업계가 담당한 이러한 과제의 실천수단의 하나가 바로 손해예방활동을 통한 과학적인 위험관리기능을 확대·제고하는 일이다.

화재,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 도난 배상책임 분야에서의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위험 분석(risk analysis)의 과학화, 광범위한 위험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한 Top Risk 결정 등 PML의 추정, 적절한 보험조건 및 요율의 제시, 공제(Deductible), 공동보험(Co-Insurance),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제시를 통한 보험비용의 경감 유도 등 이같은 적극적 활동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인식하여 보험사업 본래의 기능과 목표에로의 접근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